


보도자료 2012. 4. 17.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국제심의회관실
	담당자	국제심의회관 진상훈 (☎3480-1969)
	공보관실 ☎ 3480-1451	

페루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 세사르 산 마르틴 페루 대법원장은 2012. 4. 17.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1. 방문 개요

- 세사르 산 마르틴(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식초청을 받아 2012. 4. 17.(화) 오전에 대법원을 방문하였음
-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하였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임
- 산 마르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은 현직 페루 대법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한

2. 방문 세부 내용

- 이번 방문에는 산 마르틴 대법원장 이외에도 호세 레카로스(José Lecaros) 대법관, 빅토르 프라도(Victor Prado) 대법관 등 총 6명의 대표단이 방한하였음
- 산 마르틴 대법원장 등 페루 방문단은 4월 1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여 한국의 선진 사법정보화 시스템의 전수, 양국 대법원 판례의 상호 교환 등 양국 사법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 자리에는 작년에 페루 대법원을 방문하여 산 마르틴 대법원장을 예방한 바 있는 민일영 대법관도 참석하였음
- 그 후 페루 방문단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의 안내로 약 15분간 대법정, 소법정, 법원전시관 등 대법원 청사를 둘러보았음
- 페루 방문단은 오후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민일영 대법관이 주최한 환영 오찬에 참석하였음. 민일영 대법관은 환영사에서 산 마르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이 양국 사법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고, 산 마르틴 대법원장도 양국 사법부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에 화답하였음
- 이어서 페루 방문단은 오후 2시 4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사법정보화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살펴보았음

3. 향후 일정 등

- 산 마르틴 대법원장 등 페루 방문단은 이번 방문기간 중 사법연수원을 방문하여 사법연수원장을 접견한 후 법관연수제도 및 사법연수원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을 예방한 후 21일(토) 오후에 귀국할 예정임
- 산 마르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기대됨